

##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hildren's Individual Variables and Maternal  
Parenting on Children's Playfulness

강지혜(Kang, Ji Hye)\*\* · 이경님(Lee, Kyung Nim)\*\*\*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의 개인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계의 직·간접적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4세, 5세 유아 288명과 그들의 어머니 288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유아의 놀이성 척도(Barnett, 1990), 기질 척도(Buss & Plomin, 1984)와 자기통제 척도(이경님, 1997)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박주희, 2007)이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놀이성에 성, 사회성 기질,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통제를 매개로, 사회성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에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놀이성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유아의 사회성 기질, 자기통제, 정서성 기질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아의 연령,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그 효과가 미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놀이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에 기질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사회성 기질은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놀이성에 유아의 자기통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기질, 자기통제, 양육행동, 놀이성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하단 어린이집 교사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knlee@dau.ac.kr

## I. 서 론

놀이는 그 자체가 동기가 되며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으로써 놀이를 하려는 성향은 인간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본성 중의 하나이다. 특히 유아기의 놀이는 생활이며 가장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유아들은 놀이를 통하여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래와 어울리면서 언어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촉진된다. 또한 놀이는 유아들이 사물에 대한 개념,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인지발달과 학습의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된다. 이처럼 놀이는 유아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 및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는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아들의 놀이를 지지하고 격려함은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는 것은 아니며 거의 매일 혼자서 놀거나 또래와 비협동적이며 심지어 함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유아도 있어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별 유아들마다 보이는 자신만의 놀이성향의 개인 차이를 '놀이성(Playfulnes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놀이성은 놀이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인 성향(Barnett, 1990)이며 놀이행동의 잠재적인 원동력으로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놀이의 질과 행동양상을 의미한다(Lieberman, 1965). 또한 놀이성은 놀이를 즐기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놀이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명백한 즐거움, 유머 감각의 요소로 구성되며(Barnett, 1990; Lieberman, 1965) 이는 놀이행동에서 관찰되어질 수 있다(이경실, 2004).

유아의 놀이성의 개인차는 유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놀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되는 유아의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기질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먼저 놀이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적 자발성 외에 모든 놀이성의 하위요인 및 전체에서 성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지혜, 김광웅, 2006; 백수정, 2003),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으나 그 외 요인 및 전체에서 성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기순, 2002), 신체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나 그 외 하위요인 및 전체에서는 성 차이가 없다는 연구(우수경, 2008)들이 있었다. 이로써 유아의 놀이성은 일부 하위요인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발견되며 그 하위요인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아기 동안의 놀이성 발달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놀이성이 더 높다는 연구(고소영, 2003; 류자혜, 2003),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의 놀이성이 더 높다는 연구(Barnett, 1991)가 있어 지속적인 놀이성 발달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유아의 놀이성군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놀이성이 유아기 동안 안정된다는 연구(김영희, 1995)도 있어 유아기 동안의 놀이성 발달에 관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

기질은 상황에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유아의 행동적 특징 혹은 스타일로(Kail, 2007) 같은 상황이라도 기질이 다르면 유아 행동의 개인차는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질의 개인차는 유아의 놀이의 모습과 행동의 개인차를 야기 할 수 있다. 즉, 유아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놀이 상황이라도 유아 개인의 흥미가 다르며 표출되는 놀이행동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김민정, 엄정애, 2005; 우수경, 2008).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놀이성향에 대하여 기질의 설명력이 높으며 기질의 하위요인 중 사회성과 주의집중성이 중요하게 나타났고(조은옥, 2002) 유아의 놀이성에 기질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황윤세, 최미숙, 2007), 순한 기질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신체적 자발성을 제외한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 표현 및 유머감각의 놀이성이 더 높다고 밝혀지고 있다(허지은, 2005). 또한 혼자놀이의 유형 중 말없는 행동은 기질 중 사회성과 부적관계가 나타났다(김민정, 엄정애, 2005). 그런데 유아의 놀이성과 기질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주희, 한석실, 2007)도 있었다. 이들을 종합하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놀이성에 대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음을 추측 할 수 있으나 상반되는 연구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에 유아의 놀이성 발달과 관련되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으로 자기통제가 주목 받고 있다(황윤세, 2007, 2008). 자기통제는 더 좋은 결과를 위하여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으로 원만한 또래관계에 필수적인 능력이다(이경남, 2000). 유아의 대부분의 놀이 활동은 또래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필연적으로 포함되므로 자기통제는 바람직한 놀이성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감정조절과 충동억제가 유아의 놀이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연구(한미현, 2002),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는 자기조절력 및 그 하위요인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황윤세, 2007),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하위변인인 자기통제가 유아의 놀이성 전체 및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힌 연구(황윤세, 2008)에서 검증되고 있다.

유아가 보이는 놀이특성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성장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유아가 출생하여 최초로 상호작용하며 놀이를 함께 하는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행동을 보이는가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 정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은 반면 거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놀이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장은정, 2001), 부모의 허용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상상놀이에 효과적임(Levin & Wardwell, 1971, 이숙재, 2004에서 재인용)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온정성과 통제성의 양육태도와 남녀 유아의 놀이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박주희, 한석실, 2007)도 있다. 이처럼 유아의 놀이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놀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연령, 성, 기질과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많았다. 먼저 유아기 동안 기질의 일부 차원은 변화하며(정인희, 황혜정, 2009; 천희영, 1991) 1세에서 5세 동안 바람직한 기질 특성으로 변화한다고 밝혀지고 있어(Korn, 1984) 유아의 연령이 증가 하는 동안 기질적 특성이 변화 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김미정, 2010) 여아보다 남아에게 어머니는 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연, 이숙, 1989; 이경남, 2001; 최지현, 2001). 그리고 유아기 동안 자기통제의 연령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박호선, 2002; 최지현, 2001).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유아가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Scarr & McCartney, 1983; Shinere & Caspi, 2003, Bornstein & Lamb, 2005에서 재인용)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성과 통제성 양육행동에, 사회성 기질의 경우 통제성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박영태, 이경남, 2011)를 포함한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지나, 문혁준, 2010; 임양미, 1994; Van dem Boom, 1994)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활동성 기질은 남·여 유아의 자기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아의 자기통제에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지영, 도현심, 최미경, 2005)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자기통제에 가장 큰 인과효과가 나타난 연구(박영태, 이경남, 2011)도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적대·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이나 자기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박호선, 2002; 이미라, 1999; Kochanska & Aksan, 1995). 어머니의 온정성과 통제성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박영태, 이경님, 2011). 그 외 어머니의 다정함과 온화한 양육행동은 유아의 순응과 유혹저항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Kochanska, Murray, & Halan, 2000) 부모의 엄격한 양육태도는 아동의 낮은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Donovan, Leavitt, & Walsh, 200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유아의 연령과 성별은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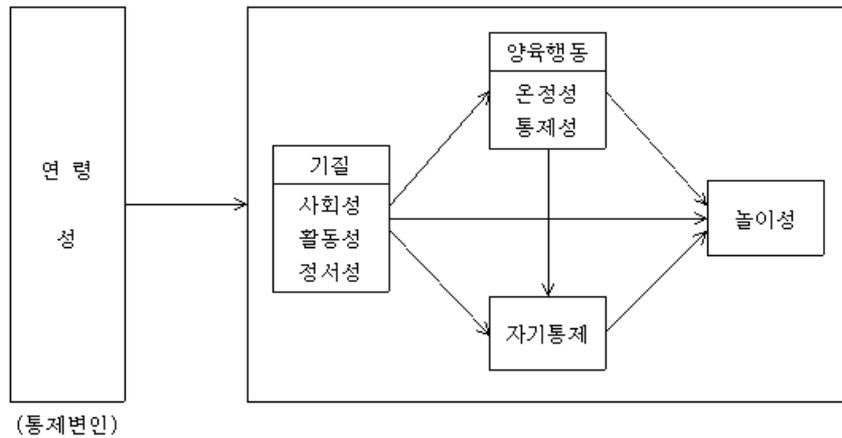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감안할 때 유아의 놀이성에 성별, 연령,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상호 관련하여 영향을 미침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유아의 놀이성에 대하여 유아들의 개인 내적 변인 또는 사회외적 변인들의 영향을 각각 분석한 것으로 이들을 통합한 연구는 없었다. 더욱이 유아의 놀이성에 대하여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유아의 놀이성에 대하여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유아의 놀이성 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적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직·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



[그림 1] 가설적 경로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5개원에 재원 중인 288명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288명이다. 이들 유아 중 만 3세는 85명(29.5%), 만 4세는 112명(38.9%), 만 5세는 91명(31.6%)이고, 남아는 143명(49.7%), 여아는 145명(50.3%)이다.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은 36~40세가 161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세 이하가 100명(34.7%) 41~45세가 26명(9.0%)이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96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이 94명(32.6%), 대학 졸업이 89명(30.9%)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없음이 165명(57.3%), 있음이 123명(42.7%)이었다.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401만원 이상이 138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1~400만원이 93명(32.3%), 201~300만원이 48명(16.7%)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유아의 놀이성 척도와 유아의 기질,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 1) 유아의 놀이성 척도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tt(1990)의 아동놀이성척도(CPS : 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심숙영과 김점연(200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신체적 자발성에 관한 4개 문항과 사회적 자발성에 관한 5개 문항, 인지적 자발성에 관한 4개 문항, 즐거움의 표현에 관한 5개 문항 및 유머감각에 관한 5개 문항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23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된다. 문항의 예를 들면 신체적 자발성의 경우 '놀이를 할 때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인다', 사회적 자발성의 경우 '다른 유아와 협동하여 놀이한다', 인지적 자발성의 경우 '놀이감을 독특한 방법으로 가지고 논다' 즐거움의 표현의 경우 '놀이하는 동안 즐거움을 표현한다', 유머감각의 경우 '놀이 도중 재미 있는 흉내를 낸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3으로 나타났다.

###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유아용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척도를 수정·보완한 박성연과 한세영(199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사회성에 관한 9개 문항, 활동성에 관한 5개 문항 및 정서성에 관한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Buss와 Plomin이 구분한 기질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사회성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잘 어울리는 특성을 의미하고, 활동성은 활발히 움직이고 행동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정서성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부정적 정서성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사회성의 경우 '혼자 노는 것 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활동성의 경우 '아침부터(일어나자마자) 활동적이다', 정서성의 경우 '잘 칭얼대고 운다' 등이 포함된다. 문항은 총 20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성과 활동성의 경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 활동성은 높고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사회성 .87, 활동성 .77, 정서성 .82로 나타났다.

### 3) 유아의 자기통제

유아의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Humphrey(1982)의 교사용 자기통제평정척도(T-SCRS)를 기초로 하고 Kendall과 Wilcox(1979)의 자기통제평정척도(SCRS)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구성한 이경님(1997)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통제평정척도의 각 문항의 내용이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합한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안면 타당도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필요한 규칙이나 선생님의 지시를 지켜보지 않아도 잘 지키고 따른다’, ‘친구들이 하는 놀이나 활동에 불쑥 끼어 들거나 방해한다’ 등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각 유아의 담임교사가 유아의 평소의 행동을 관찰하고 각 문항에 대하여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Thomas와 Chess(1977)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를 번안하여 이경민(2002)이 국내 어머니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한 박주희(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성에 관한 13문항과 통제성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25문항의 Likert식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6점까지 평정된다. 문항의 예를 들면 온정성의 경우 ‘나는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하며 애정을 표현한다’, 통제성의 경우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리거나 야단친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온정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에 대해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통제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에 대해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온정성 .87, 통제성 .92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2009년 11월 25일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지역 어린이집 1개원을 선정하여 만 3세 5명, 4세 7명, 5세 8명 유아 2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상

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9년 12월 8일에서 12일까지 부산시 사하구, 서구, 영도구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5개원을 임의 표집하여 만 3세, 4세,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님 및 각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하였다.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통제는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설문지는 연구대상 유아들의 담임교사인 23명의 교사에게 배부하였다. 교사들로 하여금 각 반에 재원 중인 유아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2주 후 회수되었다. 유아의 기질과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어머니가 설문지를 가지고 간 자녀의 일상적인 행동을 관찰하게 하고 평정하였으며, 또한 평소의 어머니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정하도록 안내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봉투에 봉하여 교사를 통해 각 유아에게 배부하여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작성하게 한 후 2주 이내에 회수되었다. 회수된 314부 중 교사용과 어머니용의 짝이 맞지 않은 자료와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28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먼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와 그들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자기통제와 놀이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절대적합지수로 표준카이자승치, GFI를, 조정적합지수로 AGFI, RMSEA를, 증분적합지수로 TLI, NFI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고,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기초분석: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유아의 기질, 자기통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1.사회성	1						
2. 활동성	.638***	1					
3. 정서성	-.340***	-.209***	1				
4. 자기통제	.002	-.180**	-.397***	1			
5. 온정성	.177**	.087	-.507***	.383***	1		
6. 통제성	-.246***	-.028	.597***	-.637***	-.604***	1	
7. 놀이성	.372***	.235***	-.310***	.317***	.214***	-.411***	1
M	3.59	3.83	2.53	3.64	5.01	3.16	3.69
(SD)	(.51)	(.64)	(.71)	(.71)	(.54)	(1.05)	(.52)

\*\* p<.01 \*\*\* p<.001

<표 1>에 의하면 유아의 놀이성은 사회성 기질( $r=.372, p<.001$ ), 활동성 기질( $r=.235, p<.001$ ), 자기통제( $r=.317, p<.001$ ),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r=.214, p<.0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부정적인 정서성 기질( $r=-.310, p<.001$ ),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r=-.411, p<.001$ )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유아는 사회성과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놀이성이 높은 반면,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수록 놀이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 2.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직·간접적 영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아의 기질, 자기통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가설적 경로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초기 가설모형은 포화모델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경로 중 하나를 제거하고 가설적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chi^2(239.30, df=2, p<.001)$  GFI는 .859, AGFI는 .096, RMSEA는 .340,

TLI는 -.588, NFI는 .696으로 모든 적합도가 수용기준 이하로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수정을 고려하였다. 결과에 산출된 모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검토한 후 측정오차간의 상관을 허용하여 오차항 간의 공변량을 자유화시켜 최초의 연구모형에서 더 적절한 모형으로 수정하였다(김계수, 2007). 수정 모형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로모형의 구체적인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적합지수	절대적합지수			조정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hi^2/df$	p (유의확률)	GFI	AGFI	RMSEA	TLI	NFI
적합기준	<3	>.05	>.90	>.90	<.08	>.90	>.90
경로모형	0.331	.803	.999	.988	.000	1.032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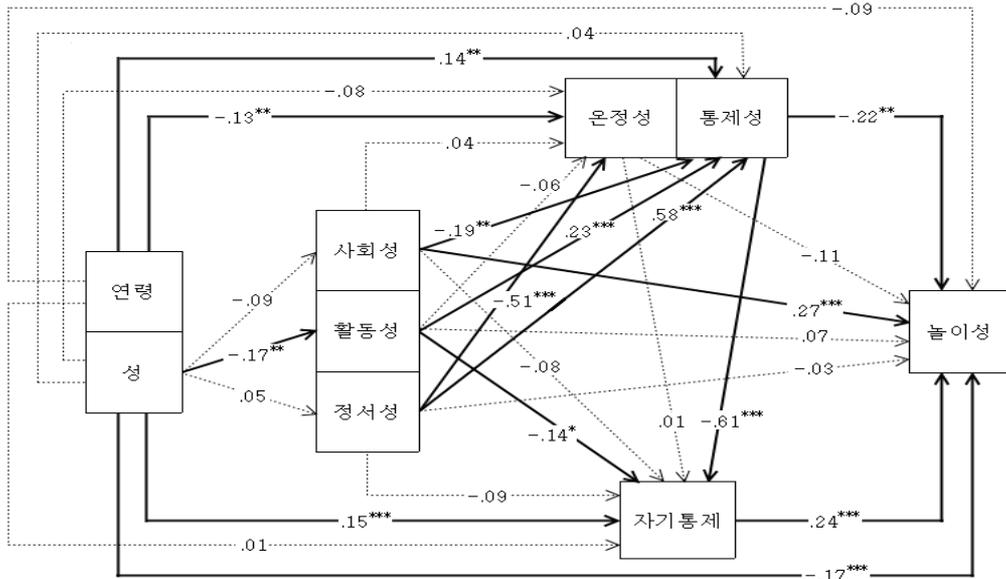
<표 2>에 의하면 절대적합지수의 경우  $\chi^2/df$ 는 0.331, 유의확률 .803, GFI는 .999, 조정적합지수의 경우 AGFI는 .988, RMSEA는 .000,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TLI는 1.032, NFI는 .999로 모든 값이 적합기준에 부합되므로 경로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놀이성에 유아의 기질, 자기통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설적 모형을 토대로 경로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경로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같으며, 이 중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현하여 이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변인간 경로	B	$\beta$	S.E.	C.R.
성	→ 사회성 기질	-.967	-.090	.633	-1.528
	→ 활동성 기질	-1.099	-.173	.369	-2.976**
	→ 정서성 기질	.428	.050	.504	.849
	→ 자기통제	3.195	.150	.931	3.431***
	→ 온정적 양육행동	-1.161	-.082	.719	-1.616
	→ 통제적 양육행동	.983	.039	1.163	.845
	→ 놀이성	-4.108	-.171	1.227	-3.347***
연령	→ 자기통제	.140	.010	.595	.235
	→ 온정적 양육행동	-1.211	-.134	.453	-2.677**
	→ 통제적 양육행동	2.211	.137	.733	3.018**
	→ 놀이성	-1.413	-.092	.769	-1.837
사회성 기질	→ 자기통제	-.153	-.077	.116	-1.312
	→ 온정적 양육행동	.051	.038	.089	.572
	→ 통제적 양육행동	-.448	-.191	.143	-3.126**
	→ 놀이성	.592	.265	.151	3.929***
활동성 기질	→ 자기통제	-.474	-.141	.193	-2.453*
	→ 온정적 양육행동	-.138	-.062	.146	-.943
	→ 통제적 양육행동	.898	.226	.236	3.798***
	→ 놀이성	.282	.074	.252	1.116
정서성 기질	→ 자기통제	-.226	-.091	.143	-1.586
	→ 온정적 양육행동	-.840	-.507	.088	-9.573***
	→ 통제적 양육행동	1.708	.580	.142	12.025***
	→ 놀이성	-.075	-.027	.185	-.402
자기통제	→ 놀이성	.272	.242	.076	3.574***
온정적 양육행동	→ 자기통제	.021	.014	.084	.249
	→ 놀이성	-.183	-.108	.108	-1.684
통제적 양육행동	→ 자기통제	-.514	-.608	.052	-9.919***
	→ 놀이성	-.210	-.220	.078	-2.703**

\* p<.05 \*\* p<.01 \*\*\* p<.001



\* p<.05 \*\* p<.01 \*\*\* p<.001

[그림 2]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변인 간의 경로모형

[그림 2]에 의하면 유아의 놀이성에 대해 유아의 연령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beta=.14, p<.01$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아의 성은 놀이성에 직접적인 영향( $\beta=-.17, p<.001$ ) 뿐만 아니라 유아의 활동성 기질( $\beta=-.17, p<.01$ )과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beta=.15, p<.001$ )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성 기질은 놀이성에 직접적인 영향( $\beta=.27, p<.001$ )을 미치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beta=-.19, p<.01$ )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beta=.23, p<.001$ )과 유아의 자기통제( $\beta=-.14, p<.05$ )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beta=.58, p<.001$ ) 간접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접적인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놀이성에 직접적인 영향( $\beta=-.22, p<.01$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beta=-.61, p<.001$ )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통제는 놀이성에 직접적인 영향( $\beta=-.24,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31.3%였다.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유아의 기질, 자기통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놀이성	연령	-.09	-.03	-.13	
	성	-.17	-	-.17	
	기질	사회성	.27	.05	.31
		활동성	.07	-.11	-.04
		정서성	-.03	-.18	-.21
	자기통제	.24	-	.24	
	양육행동	온정성	-.11	-	-.10
		통제성	-.22	-.15	-.37

<표 4>에 의하면 유아의 놀이성에 유아의 사회성 기질이 가장 큰 직접효과 .27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유아의 자기통제 .24,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놀이성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37, 유아의 사회성 기질 .31, 자기통제 .24, 정서성 -.21, 성 -.17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유아의 연령,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그 효과가 유의 하지 않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 4,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기질, 자기통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의 놀이성에 이들 관련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와 그 인과효과의 크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놀이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 뿐 만 아니라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놀이성이 저하된다는 연구(장은정, 2001),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통제를 낮게 한다는 연구(이경님, 2001)에 의해 지지된다. 이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놀이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통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놀이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놀이성에 위험한 요인이므로 놀이성에 대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부모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아의 놀이성에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그 효과가 미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로모형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유아의 놀이성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관련이 있으나 유아의 놀이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높은 놀이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이영순, 1999; 장은정, 2001)를 감안할 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놀이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질의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성 기질은 유아의 놀이성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놀이성이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우수경, 2008)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유능성 혹은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의 놀이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한 연구(김근희, 2006; 황윤세, 2006), 또래 인기도와 친사회성이 높고 적극적인 유아가 놀이성이 높다는 연구(Coie, Dodge, & Kupersmidt, 1983)와 일치하였다. 또한 사회성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통제를 높게 하여 놀이성을 증진시키는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즉 사회성이 높은 유아의 어머니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므로 놀이성이 증진되는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 기질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박영태, 이경님, 2011), 행동적 자기조절력과 놀이성과의 정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박윤자, 2005; 황윤세, 2008)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성 기질은 놀이성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놀이성 증진을 위하여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기통제를 매개로 놀이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어머니

가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김나희, 2010),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저하된다는 연구(곽혜경, 1998; 박호선, 2002)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놀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놀이성에 대한 활동성의 기질의 인과효과의 크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놀이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큰 영향을 미쳐 놀이성을 저하시키는 큰 인과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정서가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박영태, 이경남, 2011)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과 부적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장은정, 2001)에 의하여 지지된다. 이들 연구들을 감안하여 보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놀이성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놀이성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유아의 놀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성과 정서성 기질은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잘 어울리는 유아가 놀이성이 더욱 발달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놀이성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성 기질은 놀이성의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자기통제는 놀이성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와 유아의 놀이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한미현, 2002),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이 놀이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연구(박윤자, 2005; 황윤세, 2008)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 자기조절력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황윤세, 2007), 놀이성에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자기통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연구(황윤세, 2008)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놀이성과 유아의 자기통제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 증진 훈련이 유아의 놀이성 증진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 성공적인 놀이성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본다.

유아의 성은 놀이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아의 성은 활동성을 거쳐 자기통제를 매개로, 또한 자기통제를 직접적으로 매개로 하여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효과는 미약하였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성이 더 높아 자기통제를 낮게 하여 놀이성이 낮지만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통제가 높아 놀이성이 더 높아져 성의 간접적인 인과효과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성의 직접적인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여 남아가 여아보다 놀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하위요인에서 놀이성의 성 차이를 밝힌 연구들(김지혜, 김광웅, 2006; 우수경, 2008)과는 부분적으로 일치 하였다. 이처럼,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유아의 연령은 놀이성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간접적인 영향도 매우 적어 놀이성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에서 5세 동안 유아의 놀이성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놀이성군이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어 안정된다고 보고한 연구(김영희, 1996)와 일치하였으나 유아기의 놀이성의 지속적인 발달을 보고한 연구들(고소영, 2003; Barnett, 1991)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놀이성에 성, 사회성 기질,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영향 뿐 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에 자기통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정서성 기질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놀이성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유아의 사회성 기질, 자기통제, 정서성 기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써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놀이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에 기질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사회성 기질은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놀이성에 유아의 자기통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하여 유아의 기질,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 유아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 및 가족환경요인, 사회적 요인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된 요인을 보완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표집 되었으므로 그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의 아동이 골고루 표집 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소영. (2003).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계숙. (2007).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기순.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정. (2010).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혜경. (1998).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근희. (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나희. (2010).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 엄정애. (2005). 유아의 혼자 놀이와 기질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1-14.
- 김영희. (1995). 아동의 놀이성 군(群)확인 및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혜, 김광웅. (2006). 유아의 놀이성과 정서능력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9(1), 91-105.
- 류자혜. (2003).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인정. (2008).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및 환상성과 행동적 자기조절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6-156.
- 박성연,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박영태, 이경님. (201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계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235-256.
- 박윤자. (2005).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놀이성과의 관계. 아주대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주희. (2007). 구성놀이 질과 유아의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 및 관련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주희, 한석실. (2007). 유아의 놀이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7(2), 55-72.
- 박호선. (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행동 발달 간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수정. (2003). 부모화합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숙영, 김점연. (2005). 유아의 놀이행동과 놀이성에 대한 보육 프로그램의 질 평가 변인예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361-383.
- 우수경. (2008). 유아의 성, 기질, 정서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59-280.
- 이경남. (1997).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과 과제수행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0(1), 125-145.
- 이경남. (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경남. (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 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경민. (2002). 유아의 지능, 감성지능, 창의성의 관계 및 관련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경실. (2004). 유아의 놀이성(Playfulness) 관련 연구 분석. **논문집**, 24, 13-20.
- 이미라. (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재. (2004).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영순. (1999).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지위 및 자아지각과의 관계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란, 이소은. (2004).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따른 유아의 자기통제력. **생활과학연구논총**, 8(1), 93-115.
- 이지희, 문혁준 (2001).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아동학회지**, 31(3), 17-32
- 임양미. (1994). 어머니 양육방식의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은정.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인희, 황혜정. (2009). 만 3-5세 유아의 기질 측정을 위한 부모용 검사도구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96-115.
- 정지영, 도현심, 최미경. (2005).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언어적 통제 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305-319.
- 조은옥. (2002).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성향과 놀이 행동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천희영. (1991). 아동용 기질 측정도구의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2(2), 78-95.
- 최지현. (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2002). 유아의 창의성, 놀이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지은. (2005).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윤세. (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유능성 및 교사-유아 관계성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11-228.
- 황윤세. (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 황윤세. (2008).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과 정서지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293-309.
- 황윤세, 최미숙. (2007). 기질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49-66.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measurement. *Play & Culture*, 3, 319-336.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Erlbaum.
- Bornstein, M. C. & Lamb, M. E. (2009) *Developmental science*, 발달과학.(곽금주, 김민화, 신혜은, 김연수, 이새별, 이승진 공역). 서울: 학지사 (원판 2005).
- Coie, J. D., Dodge, D. A., & Kupersmidt, J. B.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Donovan, W. Z., Leavitt, I. A., & Walsh, R. O. (2000). Maternal illusory control predicts socialization strategies and toddler compliance. *Developmental*

- Psychology*, 36, 402-411.
- Humphrey, L. L. (1982). Children's and teacher's perspective on children's self-control : the development of two rating sc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624-633.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Kail, R. V. (2007).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5th)*. Pearson Prentice Hall.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 Korn, S. J. (1984).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difficult/easy temperament: Infancy to young adulthood. *Merrill-Parmer Quarterly*, 30(2), 189-199.
- Levin, H. & Wardwell, E., (1971). The research use of doll play. In R. E. Herron & B. Sutton-Smith(Eds.). *Child's play*(pp. 145-184). New York : John Willey & Sons.
- Lieberman, J. N.(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Scarr, S., & McCartney, K. (1983).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s: A theory of genotype environment effects. *Child Development*, 54, 424-435.
- Shiner, R., & Capsi, A. (2003).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t: Measurement,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2-32.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Van den Boom, D. C., & Hoeksma, J. B. (1994). The effect of infant irritability on mother-infant interaction: A growth -curve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581-590.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self-control and maternal parenting on children's playfuln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8 3-, 4- and 5- years 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s and pathway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sex, sociability temperament, self-control and maternal authoritarian parenting directly affected children's playfulness. Children's sex indirectly affected children's playfulness through children's activity level and self-control. Children's sociability and emotionality temperament indirectly affected children's playfulness through maternal authoritarian parenting. Maternal authoritarian parenting indirectly children's playfulness affected through children's self-control. Secon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children's playfulness was maternal authoritarian parenting.

**Key words** : temperament, self-control, parenting, playfulness.